2006년
1월 1일
제 45 호

KBS 社友會報

社友會 目標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팩스 (02)3210-1449

새해 더 큰 약진 다짐 송년의 밤 성료

KBS사우회는 12월 12일 오후 5시 반,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창설이래 가장 많은 250여명의 회우가 모인 가운데 '2005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가졌다.

서병주 회장은 "사우회에 많은 힘이 축적되었으므로 이제 방송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회장은 2007년 방송 80년에 즈음하여 '방송사 연구위원회'(가칭)창설을 제의했다. 이어 송년회는 표창장 수여식과 축하떡 자르기, 이정석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건배 제의, 그리고 뷔페 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돈민(방송사우보험대리점 대표) = 본회 재정확충에 기여 ▶안평선(방송비평분과 위원장) = 방송비평을 사우회보에 매회 기고 ▶변정호(바둑분과위원장) = 바둑회원 100여명 확보, 바둑교실 운영 ▶박인채(이벤트분과 위원장) = 중국어 · 컴퓨터교양강좌 성공적 운영 ▶조정화(사무국 경리) = 14년간 성실 봉직.

최돈민

안평선

변정호

박인채

조정화

KBS미디어 2천만불 수출탑 수상 축하

KBS미디어는 지난해 12월 2일 사우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친목간담회를 가졌다.

미디어 이병순 사장은 서울 상암동에 신축공사중인 사옥 건설현장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올해 8백억원 매출에 세전 150억원 이익실현에 자신감 넘치는 운영현황을 설명했고 서병주 회장등 사우회 회장단은 무역의 날에 2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실적과 공로를 축하했다.

KBS미디어는 상암동에 지하 5층 지상 21층에 연건평 1만4천평의 큰 사옥을 건설중인데 2007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KBS미디어의 이병순 사장은 이 간담회 뒤인 지난 연말께 KBS비지니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 미디어 감사였던 정태진씨가 사장에 취임했다.

2차 회우의견모으기 조사
306명 응답, 긍정적 생활모습 보여

〈제 2차 회우들의 의견모으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의견 모으기에는 1차때 응답회우보다 22%가 늘어난 306명의 회우가 참여해서 회우들의 건강한 생활모습과 긍정적이고 자신감있는 생활패턴을 보여줬다.

이번 2차 의견모으기 결과는 이번 회보 4, 5면에 특집으로 보도됐다.

송재극, 한덕봉기념상 수상

KBS 방송기술인협회(회장 박종원)는 12월 15일 송년의 밤 행사에서 송재극 본회 회우에게 한덕봉기념상을 수여했다.

한덕봉기념상은 KBS방송 기술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방송기술인에게 수여한다.

방우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

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는 12월 16일 '05년 바른말 보도상 수상자'로 KBS보도본부 임장원 앵커, MBC보도본부 김상수 앵커, SBS보도본부 홍지만 앵커를 선정, 상패와 금메달을 시상했다.

<분과위원 위촉>

▲ 이벤트
이후재, 박형신, 지진웅

▲ 기술협력
정병균, 김대영, 임재진
한진덕, 정일화, 권은파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김순기 / 135-832,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45 동양파라곤Ⓐ 104-201 (02-555-2010, 011-898-2010) bjyohan@kbs.co.kr
- 김순명 / 791-814,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신동아베르디 202-1505 (054-247-7355, 011-9855-0022) sm9229@yahoo.co.kr
- 김재현 / 472-795,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503-304 (031-555-2432, 011-753-4448) kjhyun0407@hanmail.net
- 맹만재 / 446-571,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6 동일2차Ⓐ 204 -502 (031-287-7289, 018-374-7289) 동덕여대 방송연예제작과 강사 mjm89@hanmail.net
- 심의표 / 150-775,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 306-1603 (02-847-3600, 011-780-4463)
- 이상근 / 137-75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6-14 신동아럭스빌 1402호 (02-521-1919, 011-754-9942)
- 최상태 / 706-020, 대구 수성구 만촌동 650-6 (010-8514-7135) ccsstt80@nate.com

회비내신분

▶ 2004 회비내신분 오익규

▶ 2005년 회비내신분

강완수 김두석 권영원 김우철 김명생 김순기
김영택서울 김홍태 김동일 맹만재 박영기 박창연
변형하 박상수 박용식 송현식 서권섭 심의표
여태홍 이흥범 이종문 안진홍 이원균 오익규
이규영 이종문 이해영 장충구 조성탁 최계환
최창수 최상태

▶ 2006년 회비내신분

강정도 강연순 김원창 김영길 김문현경기 김광선서울
김광선 김성열 김재춘 김우식 김길회 김종식
김수웅 김선초 김은구 김준형 김성배보도 김찬식
김재현 고세혁 김두석 류석운 민경원 민광식
박봉원 박진성 박영효 박노식 변정호 박광춘
배재철 신후철 심완구 서영석 송원용 신병운
송용식 이종호 이용완 이종봉 유신박 이해영
이중순 이인화 이한철 이상수 이양구 윤군성
이상갑 이광수 이봉구 이상근 주강영 조성호
정도영아나 조도길 정용일 지승표 정유일 최영춘
최낙곤 최일순 현서서 한관관 홍삼용 황성용
함태문 허환환 하동광 한성웅경영

▶ 2007년 회비내신분

곽남순 조봉균 정근춘 최용순

▶ 2008년 회비내신분

류도희

11월 26일 ~ 12월 25일까지 회비납부일자순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謹賀新年

丙戌元旦

會 長 徐柄疇
副會長 金秀雄 金善初
金銀九 李長椿
崔鎔淳
監 事 蔡有錫 孫蘇鎭

KBS 사우회

문화산책 - ⑤

이 원 홍

박물관 명당에 버티고 선
敬天寺址 十層石塔

신축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면 중앙복도 끝자락에 유리벽을 등지고 서 있는 탑이 눈에 띈다. 전날 경복궁 정원에 서있던 경천사십층석탑(敬天寺十層石塔)이다. 야외에 있을 때는 전신에 때가 끼어 모습이 초라했는데 닦고 씻어서 그런지 대리석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13.5m나 되는 탑신을 우러러보면 그 정교한 아름다움에 국보(제86호)의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

탑의 설명판은 출신과 형태를 알리는 정도다. 그러나 그 탑에는 우리의 슬픈 역사가 점철돼있다. 동국여지승람(1481년)을 1530년에 증보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경천사(敬天寺: 원소재지는 豊德郡西面敬天里) 항목을 보면 「이 절에 13층(기단까지 합친 것) 석탑이 있다… 세상에 전하는 말이 원(元)나라 탈탈승상(脫脫丞相)이 원찰(願刹)로 만들고 진녕군(晋寧君) 강융(姜融)이 원나라에서 공장(工匠)을 뽑아다가 이 탑을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탈탈승상과 강융의 화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탑신 이맛돌에는 그것을 입증하듯 지정(至正)8년3월 진영부원군(晋寧府院君) 강융과 원사(院使) 고용봉(高龍鳳)이 시주하여 탑을 만들었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지정8년이면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로 서기 1348년에 해당한다.

고려와 원은 비극적인 관계다. 100년이 넘도록 원나라에 예속되어 왕실을 비롯한 고려의 근본이 몽고인의 수중에 있었다. 그 비극의 역사는 1219년 거란족 토벌에 몽고의 힘을 빌린데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협력의 대가치고는 지나치고도 남는 공물요구를 감수하고 사신으로 파견된 저고여(著古與)라는 자의 오만불손한 횡포에도 인내로 대응했다. 1225년 저고여가 몽고로 돌아가다가 압록강 근처에서 도둑들에게 피살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1231년의 1차 침략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몽고는 고려조정을 장악하고 쌍성총 설치로 영토를 침식하고 정동행성(征東行省) 설치로 관제를 격하시켰다. 그리고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앉히고 왕을 봉하고 폐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였다. 국내는 친몽(親蒙) 반몽(反蒙)의 갈등이 그칠 사이 없었다.

이 무렵 대도(大都:북경)에서 숙위(宿衛)하에 있던 분이 공민왕(恭愍王)이다. 1332년 충혜왕이 원나라로 불려감으로써 상왕인 충숙왕(忠肅王)이 복위되었으나 폐위된 충혜왕이 원나라 집사성(執事省)에 뇌물을 주고 복위하는 것으로 환국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원나라 순제가 궁녀로 데리고 있던 고려 여인 기(奇)씨를 제3 황후로 삼았다. 이 여인이 뒤에 공민왕에 의해 제거되는 천하의 악인 기철(奇轍)의 누이동생이다. 1343년 원나라는 다시 사신을 보내 충혜왕을 연행하여 게양(揭揚)으로 귀양을 보내 결국 악양(岳陽)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원나라에 있던 충목왕(忠穆王)을 고려국왕에 봉하여 환국시켰지만 병환으로 1348년 사망하고 말았다. 그 다음 해 충정왕(忠定王)이 즉위하게 되었으나 3년만에 폐위되고 원나라에 인질로 있던 공민왕(江陵大君)이 원나라 황족인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와 결혼하여 1351년 고려왕으로 환국했다.

그 때 노국공주를 따라 온 것이 경천사십층석탑이다. 공주의 부친인 위왕이 딸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몽고의 장인(匠人)을 조선에 보내 만들어 세운 것이다. 소재를 대리석으로 하고 구조와 장식에 정밀한 기교를 가한 것이 이국적이다. 미술사학자 고유섭(高裕燮)은 개풍군 상도면(開豊郡上道面)의 연경사(衍慶寺)에 이와 비슷한 탑이 있었으나 파편만 남아있다고 했다. 현존하는 것은 경천사 탑을 모사한 듯한 원각사지(圓覺寺址)십층석탑이 국보 제2호라는 명예를 이고 파고다 공원에 서 있는 것뿐이다. 119년의 시차가 있다. 우리의 탑은 단백하면서 근엄하고 선비와 같이 곧은 절개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이것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경천사십층석탑은 몽고 것임에 틀림없다.

이 탑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다. 조선왕조 황태자 결혼식에 축하특사로 참석했던 일본의 궁내대신 다나카(田中光顯)라는 자가 2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하여 이 탑을 헐어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다나카는 헌병과 군인을 동원하여 탑을 지키던 관원들을 위협하며 강제로 반출했다. 이 사실이 국내외로 전파된 것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7일자 보도 때문이었다. 이 신문은 1면의 논설란에서 「다나카 자작(子爵)과 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3,4일전에 무기를 소지한 일본인들이 지방 관리와 주민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탑을 헐어 송도(松都)역으로 반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3월21일자와 4월19일, 6월4일, 6월5일에 계속 사건을 추적했다. 그러자 이 기사가 미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되었다.

결국 수습에 나선 일본정부가 우에노(上野)에 하치된 탑을 다시 서울로 반송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사건의 발단이 1907년 2월4일 서울에 있는 일본인 고물상 곤도(近藤佐五郎)라는 자의 소행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1902년에 세키네(關根貞)등 학자들로 조사단을 조직하여 한반도에 있는 문화재를 폭넓게 현지 조사했다. 세키네는 1904년 2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무성한 풀밭에 서 있는 탑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관찰 기사를 게재했다.

이 탑이 아무리 훌륭하다 치더라도 박물관의 심장부 같은 곳에 모신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박물관은 소비자의 기호에 추종하는 수퍼마케트가 아니다. 요즘 TV에서도 한쪽이 징기스칸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린 국적불명의 드라마를 방송하는가 하면 다른 한 쪽은 몽고의 침략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눈물겨운 고려조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다. 박물관에 가면 몽고 탑이 명당에 버티고 있다. 한 마디로 요지경 같다.

(본회고문, KBS사장 · 문화공보부장관 역임)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구본출(여의동호회총무) / 12월 20일 저녁 6시 여의도 한야지폭포 한식점에서 회원 69명이 모인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 성대석(KBS홍우회 회장) / 12월 16일 종로구 재동에 있는 호반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회원중 지난 8월 박사학위를 받은 숭실대학교 손정호 교수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한편 성대석 회장은 KBS 홍보실 출신 모임인 "KBS홍우회" 발전을 위해 기금으로 100만원을 내놓았다.

◆ 신수용 / 아들 신한솔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싸움의 기술'이 제작완료되어 06년 1월 5일 새해 새작품으로 개봉

◆ 안표순(한길회 회장) / 12월 9일 낮 프레스센터 지하 일식당에서 송년회

◆ 이정석(대한언론인회 회장) / 12월 15일 저녁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희연 · 대한언론상 ·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최돈민 / '최돈민 사우 기증품전' 개막식이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서병주 KBS사우회장, 강릉시립박물관장, 최형민 KBS강릉국장, 국악인 김장순 교수 등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전시품목은 도자기 등 모두 136점으로 최돈민 사우가 그동안 수집해온 미술품들이다.

◆ 한중광(여맥회 회장) / 12월 13일 저녁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마포 한식당에서 여맥회 송년회

자녀결혼

◆ 김성열 / 딸(12/ 8)
◆ 연준환 / 딸(12/10)
◆ 이공순 / 아들(12/17)
◆ 김제현 / 아들(12/18)
◆ 곽남순 / 딸(12/24)
◆ 김도진 / 아들 1월 6일 낮 2시, 천주교 방배동 성당
◆ 김동원 / 딸 1월 7일 낮 12시, 천주교 논현동 성당
◆ 배정광 / 딸 1월 22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부음

◆ 천영환 / 상배 (11/27)
◆ 홍범균 / 장모 (12/ 1)
◆ 오현정 / 시모 (12/ 2)
◆ 전영우 / 부친 (12/ 5)
◆ 유수호 / 장모 (12/21)

산수

◆ 고세혁 / 12월 8일
◆ 안제희 / 12월 26일

희수

◆ 이원일 / 12월 26일

고희

◆ 이범경 / 12월 6일
◆ 김남규 / 12월 7일
◆ 김학영 / 12월 16일

회원별세

◆ 임준택 회우 / 12월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고인은 PD로 활약했으며 80년 8월 4일 정년퇴직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2남 2녀.

◆ 고재록 회우 / 12월 27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공사 전에 입사하여 청주 · 원주 · 포항 등의 방송과장을 역임한 후 1980년 정년 퇴임했다. 유족은 3녀.

알 림

사보 · 홈페이지 원고 모집

◆ 테마 : 시사, 회고기록, 역사물, 시평, 논평, 제언, 수필, 기행문, 생활 · 가족 이야기, 건강관련 체험기, 희귀한 사진, 회원 · 가족 동정, 시, 꽁트(연재물도 가능)
◆ 수량 : 200자 원고지 5장 이내 또는 A4 1장 정도
◆ 접수처 : (우) 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호
E-mail : kbssau@yahoo.co.kr
홈페이지 : www.kbssau.or.kr
Fax : (02)3210-1449
◆ 마감 : 회보 - 매달 15일까지 홈페이지 - 수시

사우회만평

"새해는 萬事亨通 멍! 멍! 멍!"

게 서

박준영 회우
(방송위원)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바로 당신 곁에 계신 분
그 분에게 사랑을 쏟아라

언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몰두하라

어디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지금 여기
이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산사(山寺)를 찾았습니다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하루 행복했습니다

신 년 사

건강, 친구, 일을 만들어가자
成年 사우회위해 책임을 다할 터

회원 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겨울 그 酷甚했던 추위와 기록적인 적설량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세월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희망에 부푼 찬란한 새해를 밝혀주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것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서병주
(KBS 사우회 회장)

사우회는 올 해로 열 아홉의 성년이 됐습니다. 회원도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져 우리 모두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자주 만납시다", "회원을 늘립시다" 그리고 "사귀고 섬기고 나누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협력으로 회원 천명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통해 저희는 방송전문직업인들로서 "스스로의 놀라운 저력"을 새롭게 발견 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회원들의 의식조사, 시청자센터 견학자 홀 지원, 교양강좌 개최, 홈페이지 운영, 회보발간, 각종 취미활동을 통한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등 사우회 산하 12개 위원회의 활동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더 많은 일을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올 해는 방송 80년(2007)을 준비하는 해로써, 우리 사우회도 그동안의 개별적인 방송사 연구 활동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각 위원회도 기존사업의 정비 및 확대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연구위원회의 활동, 교양강좌의 확대 실시와 회원들의 연구 논문의 출판, 시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콜센터의 운영 그리고 KBS비지니스 시설을 활용한 탁구교실을 여는 등 회원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올 한해 회원들에게 "스스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는 나이를 이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스스로 1) 건강을 만들고 2) 친구를 만들고 3) 일(취미활동 등)을 만들자고 제안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고, 먼저 친구를 찾아 보고, 무엇인가 할 일을 만들어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 간다면 누구에게나 올 한 해가 즐거운 나날이 될 것입니다.

'우정의 기본'은 "저 사람은 내게 없는 훌륭한 점이 있다"고 느끼는데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겸허히 반성하며 올 개띠의 해 丙戌年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말로 도움을 주어,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회도 분노와 욕설과 고성소리가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빌어 봅니다.

끝으로 올 한해 나 보다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인간으로써 후회없는 삶을 살아 갈 것을 다지며 저의 옷깃을 여밉니다.

고맙습니다.

丙戌元旦
會長 徐 柄 疇 올림

광장

笑門萬福來
다시 보고 싶은 소리들

▲ 신인 아나운서의 명 인터뷰

1975년 5월 신입 여자아나운서 'ㅂ'양 농촌모내기현장 리포터로.

"아저씨 지금 뭐하세요?"

"....."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냐 구요!"

"아 보믄 몰라. 모심제!"

"할머니랑 아주머니랑 가족인 모양이네요?"

"응"

"어머, 여긴 막걸리랑 감자랑 김치랑 샛거리죠"

"응"

"농사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요?"

"....."

"네 자녀들 학비며 농약값, 비료값, 품삯 제하면 적자겠죠?"

"응. 그려!"

"할아버지 오늘 말씀 정말 고마웠습니다."

"뭐 한 말이 있어야제"

라디오 방송이지만 혼자서 차치고 포치고, 물론 방송불가! "지가 다하고 나는 할말이 있어야제 쳇" 그 'ㅂ'아나운서는 후에 유명한 앵커가 되었다.

▲ 교토대와 캠브리지대학에서

지방의 'ㄴ'방송국. 때는 4월 1일,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詩人 교사 'ㅎ'씨, 봄시를 주제로 분위기를 잡아 가는데, "詩語를 어떻게 고르면..." 아나운서의 질문.

"네, 바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군요. 예, 지금도 일본 교토대학에서는 '거시기', '머시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예, 또 하나 영국 켐브리지 대학에서는 대한민국의 욕설 즉 'ㅆ' 'ㅉ' 'ㅃ' 등이 들어가는 욕설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일제 36년 조선인의 이름까지 빼앗었지만 '거시기' '머시기'는 도저히 불가사의(?)며 영국사람이 한국에서 배운 첫마디가 욕설. 하여 지금도 연구중"이라는 'ㅎ'시인의 설명.

그러나 그날은 4월 1일 만우절 날 낮술에 취한 'ㅎ'시인 선생님. 저승에서도 능청을 떠시고 계신지...

▲ 致辭면 다 치사인가?

1960년대 파월장병 가족위문 시민대회장. 기관장님들 축사·격려사가 이어지고, 이윽고 등단한 'ㅇ'방송국장님의 치사.

"오늘 雨中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만당하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파월장병 유가족 여러분!.

"??!!..."

"바야흐로 조국은 맹방 미국과 함께 머나먼 월남땅에서 베트공과 북괴를 무찌르고... 파월장병 유가족 여러분! 다시한번 雨中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밖에는 햇볕이 쨍쨍, 장병유가족이 아닌 가족이였으니 청중 모두가 넋이 빠지고, 기자가 3일전 비오는날 써준 치사를 'ㅇ' 국장은 서랍속에 넣어뒀다가 그냥 읽어내려간 것. 멀쩡한 '가족'을 유가족으로, 대낮이 雨中으로 둔갑한 시절. 지금 월남은 통일이 되었다.

▲ 企劃力이 뛰어났어

1960년대부터 KBS공사 창립이전까지. 문공부 주관 지역국 合評會가 있었다.

프로그램 평가 전국순회일정에 따라 'ㅈ'국에서 근엄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때는 7월말 컨세트 건물은 한증막. 평가위원, 해당국 직원, 앞으로 꾸벅, 옆으로 끄덕, 뒤로 젖혀, 눈 뜨고 잠이 든채로...

마지막 평가는 '로컬뉴스', 사회자 "마지막으로 종합평가가 있겠습니다. 문공부 방송관리과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턱을 괸채로 단꿈에 젖어 히죽히죽 웃기까지. 무릉도원에서 桃花를 만났을까.

"과장님" 사회자가 점잖게 기침을 시켰다.

"에, 에, 오늘 프로그램을 경청한 결과 특히 맨끝의 프로가 아주 기획력이 뛰어났어요. 첫째는 기획력..." 아나운서의 뉴스읽기가 기획력이 뛰어났다?

우수상을 받은 그 아나운서 "아나운서 1년에 별꼴 다 보겠네"

라디오 전성기인 그시절 밤새워 일했던 그 동료들, 지금은 백발이 앞서 가는가.

김정숙 (전주지부 편집위원)

- 책소개 -

'방송인 김인규의
공영방송특강'

김인규 KBS이사는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서 언론대학원에서 강의한 '방송정책'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을 엮었다. 김이사는 "방송현장에서 뛰었던 지난 30년을 정리하고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술하게 됐다"고 저술동기를 밝혔다.

12월 7일 밤 프레스 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커뮤니케이션 북스 발행
228쪽, 15,000원)

건강한 會友들

– 제2차 의견

우리 사우회 평

1천명 시대의 KBS 사우회 회우들은 계속 바친 KBS의 요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사우회가 두번째 실시한 <회우들의 의견 이고 자신감있는 생활 패턴을 보여줬는데 모습이었다. 이번 2차 의견 모으기는 5개항 쳐서 모아졌는데 306명의 회우가 정성껏 22% 늘어난 것이었다.

응답자 306명의 전체응답 비율은 △50대가 답률이었고 △60대가 24.3% △70대가 30.8% 다.또 2000년대 퇴직자의 응답율이 지난번 난 결과는 정년퇴직 직후의 사우회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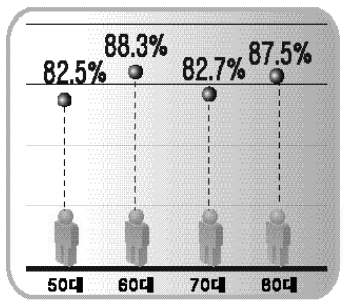
응답해준 회우들의 의견결과를 항목별로

건 강 문 제

회우들의 건강 응답이 1차 때의 88%에서 85.4%로 약간 낮아졌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치 보다는 훨씬높은 건강생활이었고 부인들의 건강 응답 수치는 1차때 75.9%보다 높은 76.3%였다.

여전한 건강 同夫人

세대별 건강



"건강한 편이다"의 나이 세대별 건강수치는 △60대가 88.3%로 가장 높았고 △80대가 87.5% △70대가 82.7%였는데 △50대가 82.5%로 가장 낮았다는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다.

부부는 닮는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부부가 함께 "건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상당수 였다. 평균수명은 여자가 높은데 우리 회원들의 경우 부인쪽 건강수치가 낮은 것은 젊어서 부인들을 고생시킨 방송계 생활 탓인가, 반성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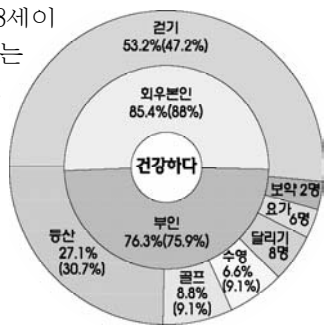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12월에 발표한 〈국민건강검진결과〉를 보면 건강 검진을 받은 686만명 가운데 건강이 양호한 사람은 34.89%였으며 질환자가 4.67%, 자기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38.78%였다. 물론 이 결과와 우리 회우들의 건강설문 수치를 바로 비교할수는 없겠지만 응답한 우리 회우들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도는 다 받았을테니까 〈국민 3명중 1명만 건강〉이라든가 〈3명중 2명 건강 이상〉이라는 신문제목은 우리회우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 같다.

걷기 운동 늘어

몸이 불편한 내용으로는 내과 신경외과 안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계통의 순이었는데 1차때 보다 신경외과의 순위가 높아졌다.

건강유지방법 으로는 걷기가 53.2% 등산 27.1% 골프8.8% 그리고 수영, 헬스클럽, 자전거, 배드민 스포츠댄스등 기타가 6.6%, 그리고 달리기, 요가, 보약등 순이었다. 1차때보다 등산이 좀 줄고 걷기가 더 늘어난것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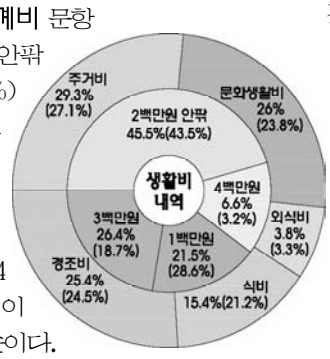
회우들의 **장수욕구**는 80세까지 사는게 적당하다는 회우가 36.3%(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85세로 28.7%(29.4%), 그리고 75세 16.2%(17.1%), 90세 10.2%(9.0%), 95세 3.5%, 100세가 2.5%였다. 70세가 4명, "자기 명대로"라고 응답한 회우가 3명, "待天命"이라 적은 회우가 1명 있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가 73.9세, 여자가 80.8세이다. 여자는 OECD국가 평균 80.6세를 넘은 수치이고 남자는 1년이 모자라는 것이다.



생 계 문 제

경제문제가 가장 절박한 제1순위로 꼽히는 나라 형편에서 우리 회우들의 살림형편은 어떨까.

먼저 한달 **가계비** 문항에서 2백만원 안팎이 45.5%(43.5%)로 가장 많았고 3백만원 안팎이 26.4%(18.7%), 1백만원 안팎이 21.5%(28.6%), 4백 만 원 이 상 이 6.6%(3.2%)의 순이다.



생계비 더 늘고

이 응답상황으로 보면 회우들의 생계비가 지난 1차때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물가 상승 탓인지 회우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달 **용돈**을 물은 항목에서 5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은 28.3%로 1차때의 24.7%보다 늘어난 것을 미루어 보면 "나아진 생활형편"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용돈**은 그다음이 30만원으로 19.5%(20.4%), 그리고 50만원이 16.3%(18%), 20만원이 16%(17.3%), 40만원 9.4%(7.0%), 10만원이 8.5%(12.5%)의 순이다. 여기서 **용돈** 내역에 경조비까지를 포함해서 많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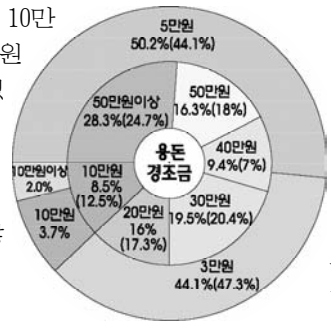
가계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것은 주거비로 29.3%(27.1%), 다음이 문화생활비로 26.0%(23.8%), 경조비가 25.4%(24.5%), 식비 15.4%(21.2%), 외식비 3.8%(3.3%)의 차례였다.

가계비 **쪼달 방법**은 퇴직금 활용이 35.0%(33.2%), 자녀보조16.8%(15.5%), 개인연금16.0%(18.7%), 유산5.8%(4.8%) 순인데 "아직 내가 벌어 산다"는 회우가 26.5%나 된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런 사실이 아닐수 없다. 그와같은 활동회우가 △50대에서 15명, △60대에서 49명, △70대에서 21명이나 응답했는데 △80대에서 응답한 활동가가 3명이나 있었다. 이와같이 활동하는 원로회우의 경우는 전체 회우들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도 사우회보에 제보됐으면 싶다.

그런 반면 한달 생활비가 70만원에 병원비 30만원쯤이 들고 나머지를 가지고 집세내고 살아간다고 **응답한** 회우도 있었다. 정말 돕기운동을 펴야 할 회우도 있슴을 잊지 말아야 겠다.

나아진 생활 형편?

우리 형편에서 적당한 **경조금**으로는 5만원이 50.2%(44.1%), 3만원 44.1%(47.3%), 10만원 3.7%, 10만원 이상이 2.0%였다. 지난번에는 3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만원 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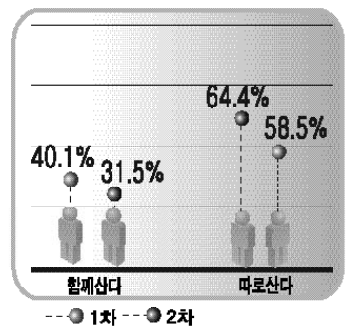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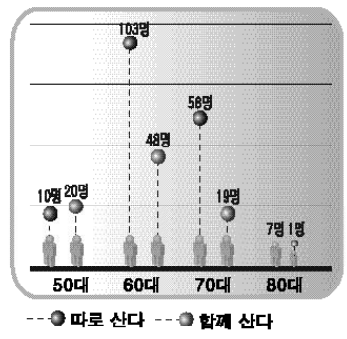
생 활 패 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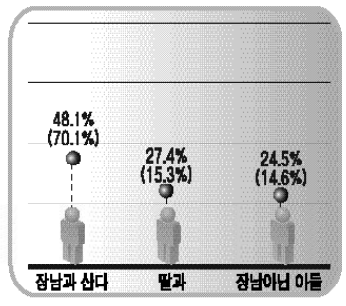
회우 의견모으기 1, 2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항목이 **자녀와의 생활**이다. "자녀와 함께 산다"가 지나번 1차때 40.1%에서 31.5%로 크게 줄었고 때문에 "따로 산다"가 58.5%에서 64.4%로 늘어난것은 당연한 일.

이와같은 현상은 "생활 능력이 있는 한 자식들과 따로 산다"는 생활의식에다가 미혼자녀를 데리고 살다가 필혼(畢婚)으로 다 분가시킨 경우가 1년사이에 그 만큼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와의 생활







아들 · 장남 선호 줄어

그것은 50대 회우들의 경우 응답자의 10명이 자녀들과 따로 사는 가정이고 함께사는 가정이 2배가 넘는 22명이었던데 비해 60대응답자에서는 "따로 산다"103명, "함께 산다"48명, 70대에서는 58대19, 80대에서는 7대1로 "함께 산다"가 1명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수있다. 또 함께 산다면 "장남과"가 1차때 70.1%에서 이번에는 48.1%로 크게 줄었고 그대신 "딸과 함께"가 27.4%(15.3%)로, "장남아닌 아들과"가 24.5%(14.6%)로 변한것은 그동안의 장남 선호, 아들 선호의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슴을 우리 회우들 한테서도 읽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외 "실버타운"등을 말하는 응답을 한 회우도 지난번 3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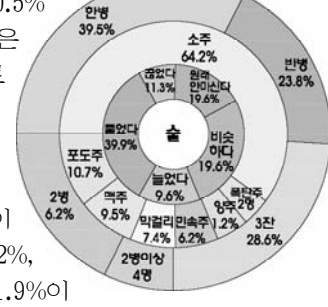
"부부 사이 좋아졌다"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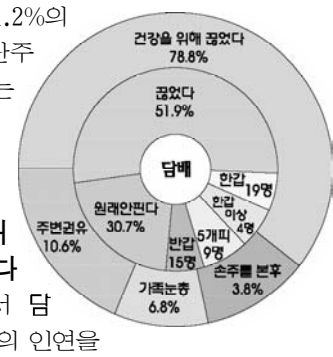
퇴직후 부부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29.4%(28.8%)로 좀 늘었고, "보통이다" 64.5%(64.8%)였다.

<하루 생활 중에서 많은시간을 > 친구들과, 가족과, TV시청, 사회(업무)활동, 운동, 독서, 인터넷, 봉사활동의 순이었는데 지난번에는 "가족과 함께"가 첫번째였다.

회우들은 이제 **술, 담배**와는 사이가 멀다. **술**보다는 **담배**가 더 그렇다. 술은 "원래 안 마신다"는 회우가 19.6%인데다 "술을 끊었다"는 회우가 11.3%. "현역 때 보다 줄었다"는 회우가 39.9%였으니까 응답회우의 70%이상이 이제 술과는 멀어졌거나 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아직도 술을 마시는 회우 가운데 "현역때 보다 늘었다"는 응답자가 9.6%(11.9%). "비슷하다"가 19.6%(9.1%)이다. 술자리를 "매일"하는 회우가 12.1%., "주2회 이상"이 37.4%, "주 1회"가50.5%였다. 주량은 소주 기준으로 "1병"이 39.5%, "3잔" 28.6%, "반병" 23.8%의 순이고 "2병"이6.2%, "2병이상"이1.9%이었다. 즐기는 술은 역시 소주가 64.2%, 포도주10.7%, 맥주9.5%, 막걸리7.4%, 민속주 6.2%, 양주1.2%의 순인데 "폭탄주를 즐긴다"는 회우가 2명 있었다.





술 담배 거리 멀어졌다

술에 비해서 **담배**는 이제 거의 인연을 단절한 회우 들이다.

응답회우의51.9%가 담배를 끊었고 원래 피우지 않는 회우가 30.7%였으니까 80%가 넘는 회우가 담배와는 단절이다.

담배 응답자 270명 중에서 "하루 5개피"가 9명, "반갑"이15명, "한갑"이19명, "한갑 이상"은 4명 뿐이었다.

담배를 끊은 회우들은 퇴직전에 이미 66.3%가 끊었고 25.6%가 퇴직후, 8.1%가 최근에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끊은 이유는 "건강을 생각해서"가 대부분인 78.8%, "가족 눈총 때문"이 6.8%, "주변 권유"가 10.6%, "손주를 본 이후"가 3.8%였다.

폭 넓은 마당발

우리 회우들이 **<요즘 가깝게 만나는 친구>**들은 "3명 이상"이 56.2%(49.8%)로 매우 많다. "2명"이 19%(17.9%), "3명" 18.3%(24.3%), "1명의 친구"를 응답한 회우도 19명(6.6%)이었다. 그 친구들도 "직장친구"28.7%, "학교동창"

, KBS걱정많아

모으기 결과 -

균 나이는 66세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이었고 젊음을 다

모으기>결과에서 회우들은 비교적 긍정적
이는 제1차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목 43개문항(1차때는 6개항목 48개문항)에 걸
응답해줬다. 이는 1차때 응답자 251명보다

가 125명회원 가운데 40명이 응답, 32%의 응
△80대 27.6%로 50대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
1차때의 19.9%에서 2차에서는 25.8%로 늘어
이 높아지고 있슴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정리한다. (기사와 도표의 괄호안은 1차때 수치)

29.3%보다 많은쪽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로 30.5%(25%)였고 "동네친구"가 11.5%. 이와 같은 응답은 회우들이 폭이 넓다고 할까, 마당발 활동을 하고있슴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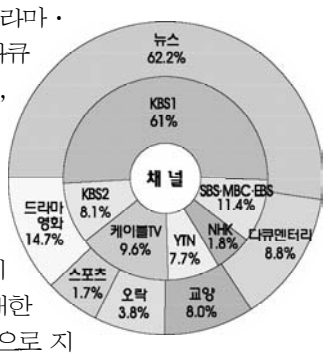
회우들의 **텔레비전 주 시청 시간 대**는 지난해의 저녁시간 대에서 밤 시간 대로 바뀌었다.

밤 시간41.3%(25.5%), 저녁시간38.5%(50.9%), 아침시간 15.5%(20.2%), 낮시간 4.7%(3.4%)이었고 하루 적정 시청시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시간이 가장 많아서 46.1%(43.4%)였다. 3시간이 23.3%(24.8%), 1시간 21.7%(19.5%),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회우는 8.9%(12.4%)였다.

채널은 KBS1이 압도적으로 61.0%였고 KBS2가8.1%, 그리고는 SBS, MBC, EBS순이었고 지난해와 달리 케이블TV 선호가 9.6%였는데 YTN이라고 응답한 회우가7.7%로 일부 공중파 보다 많은 응답이었다. NHK도 1.8%로 7,80대에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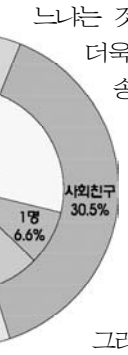
KBS1 압도적, YTN두각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뉴스가 역시 많아서 62.2%, 드라마·영화 14.7%, 다큐멘터리 8.8%, 교양 8.0%, 오락 3.8%, 스포츠1.7%등의 순이었다.



이상은 텔레비전 전체에 대한 회우들의 응답으로 지난세월을 방송에서 다 보낸 우리 회우들이 방송에 대한 관념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수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간방송인 KBS1, 그리고 뉴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고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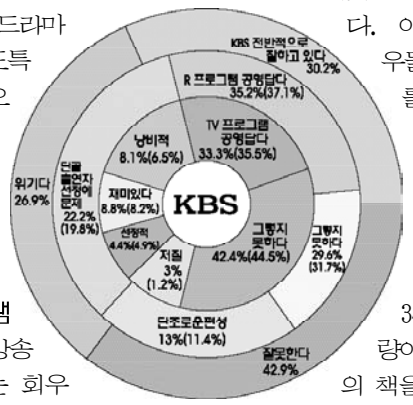


요즘의 KBS

그러한 회우들이 〈요즘의 KBS〉에 대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까.

KBS프로, 잘 잘못

요즘의 **KBS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관심있게 보는 것은 역시 뉴스로 49.2%(50.6%)로 가장 높다. 그리고는 다큐멘터리 22.2%(25.0%), 드라마 12.9%(13.6%), 보도특집 8.9%(7.3%), 오락프로 3.5%, 영화 2.1%, 주부대상 프로그램 1.2%등의 순이었다.



관심있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영방송 답게 잘 만든다"는 회우가 33.3%(35.5%)인데 비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42.4%(44.5%)였다. "잘 만든다"나 "그렇지 못하다"에 대한 응답이 함께 지난1차 때 보다 2%쯤 즐어든 대신 "낭비적이다"8.1%(6.5%), "저질이다"는 응답이3.0%(1.2%)로 지난번 보다 늘었다. "재미있다"가8.8%(8.2%), "선정적이다" 4.4%(4.9%)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보도특집이라고 할 때 이 분야에서 일하고있는 후배들을 편달하는 선배들의 충고이고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할것같다.

라디오는 "공영방송 답게 잘 만든다"가 35.2%(37.1%)로 "그렇지 못하다" 29.6%(31.7%)보다 많은 것은 지난번과 같다. 그러나 "단골출연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22.2%(19.8%), "단조로운 편성"이 13.0%(11.4%)이다.

〈**징찬할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비밀'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없어져야 할 프로그램**〉도 지난번과 같이 '미디어 포커스'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쇼·코미디에 대해 "저질" "억지"라고 적은 회우가 많았고 "연예인들의 신변잡담", 그리고 "편파성"을 지적한 프로그램에 대한 충고도 적지않았다.

선배들의 우려 커

이번 〈2차 의견 모으기〉에는 프로그램 뿐이 아닌 경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KBS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어 회우들 의견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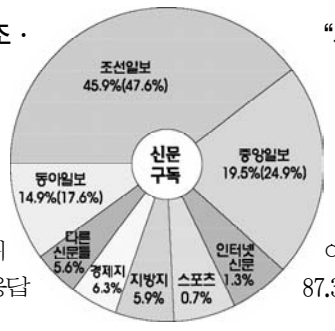
결과는 사우회 회우들의 우려가 컸다. 이 문항 응답자 268명 중 〈요즘 KBS가 잘하고있다〉에 30.2%인 81명이, 〈잘못하고있다〉에 42.9%인 115명의 회우가 응답했다.

그위에 〈위기다〉라는 문항에도 26.9%인 72명이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지난 한해동안 KBS가 6백억여원의 적자와 조직운영상의 불협화음, 프로그램 제작상의 실수 또는 무책임 문제 등이 밖으로 까지 상당히 노출된데서 비롯한 우려로 분석된다.

신문은 2차에도 조·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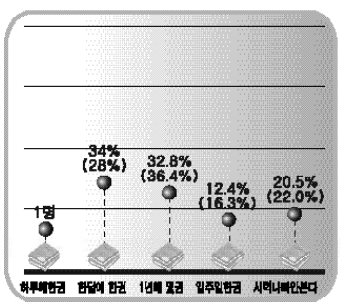
그밖에 지난번에 이어 알아본 일간신문의 **구독 실태**에서는 이번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순위에 변함이 없었다. 응답자303명중 △조선일보가 139명으로 45.9%(47.6%), △중앙일보가 59명으로 19.5%(24.9%), △동아일보가 45명인 14.9%(17.6%)였고 △3개 신문이외의 중앙일간지들이 5.6%의 몫이었으며 △경제지가 6.3%, △지방지 5.9% △스포츠0.7%였다.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보는 회우가 1.3%였다. 이 항목에서 특이한 것은 50대 회우들은 중앙일보 보다는 동아일보를 많이 본다고 적은것이었다.



이 일간지관련 문항의 답은 응답자가 스스로 적어 넣도록 했었다.

또 회우들의 **독서 경향**을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한달에 한권의 책을 보는 회우가 34%(28%), △1년에 몇권의 독서량이 32.8%(36.4%), 1주일에 한권씩의 책을 읽는 회우가 12.4%(16.3%)였으며 △매일 책 한권을 읽는 회우도 1명(지난번에는 2명)있었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져서 책을 안 본다"는 회우가 20.5%(22.0%)나 됨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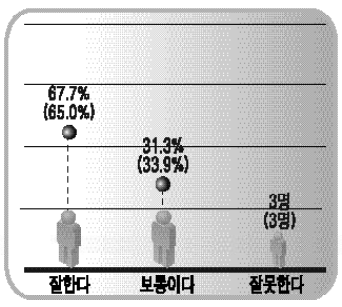
독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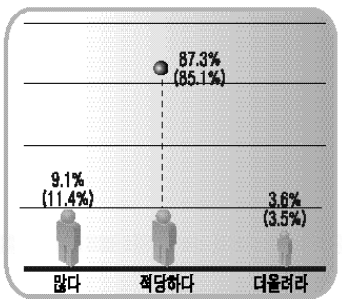
사우회에 바란다

사우회에 관련 문항에서는 올해도 비교적 긍정적 평가였다. **사우회 운영**에서 "잘 하고있다"고 응답한 회우가 67.7%로 지난번의 65.0%보다 좀 늘었고 "보통이다"가 31.3%(33.9%), "잘 못한다"는 회우가 지난해와 같은 3명 있었다.

사우회 운영



사우회 연회비



"사우회 잘 한다" 늘어

동호회 운영에서는 "동호회를 더늘리라"는 의견이 15.4%(7.5%), "적당하다"가 62.4%(63.3%),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22.2%(28.9%)였다. 또 사우회비가 "많다"는 의견이 9.1%(11.4%), "적당하다"가 87.3%(85.1%)였으며 "더 올려라"는 의견이 3.6%(3.5%)였다. **사우회보**와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는 주관적으로 적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잘 하고있다" "수고가 많다" "그만하면…"이라는 격려를 많이 보내줬고 "지면을 늘리라"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그밖에 △노후 설계, 재테크 관련 정보 △회원 동정 더 많이 △지방의 소식을 더 △다양한 사우들의참여 △KBS에 대한 직언 충고를 더 많이하라는등의 의견이 많은 편이었고 △"특정인 원고에 의존한다" △"재직 시절 잘 나가던 사람들의 지면" △"편집의 조잡"이라는 한 두명의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주고 싶은 의견〉에서는 △힘 있는 사우회를 △지방사우회에 더 관심과 배려를 △회원 수첩에 생년월일도 등의 의견과 △KBS는 공영방송으로 거듭 나라 △KBS는 국민과 나라 생각하는 방송이어야 △KBS는 사우회와 함께 공사의 재정 안정 및 확충 방안을 연구하라는등 사우회와 KBS에 대한 주문과 충고 의견이 많았다.

사우회 평균나이는 66세

이번 〈2차회우의견모으기〉와 함께 작업한 회우들의 연령 분포 분석 결과 사우회 회우의 **평균 연령**은 66.05세로 나타났다. 사우회 회우의 총 나이는 71,008살 이었다.

연령 세대별로 보면 △90대-1명, △80대-29명, △70대-263명, △60대-650명, △50대-125명, △40대-7명, △연령 미파악-7명등 지난 연말현재 사우회 회우는 1082명이다.

後記

제1차 때 보다 22%나 더 많은 응답회우들의 관심과 사랑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직은 초보상태인 〈사우 의견 모으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성숙되어 비중있고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2차의견모으기 설문에는 여러 의견에 따라 주관적 적어넣기 문항을 만들었는데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하나하나 다 게재할 수는 없지만 회보, 홈페이지 제작과 사우회 운영에 참고가 될것입니다. 그 만큼 집계와 분석 작업에 힘 들기도 했습니다.

정성껏 써서 보내 주셨던 응답 가운데 KBS 방송프로그램은 "공영방송답게 잘 만든다"면서도 "KBS가 잘못하고있다" "위기다"라고 적어준 응답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됐지만 〈가계비 100만원 안팎〉에 "용돈 50만원"이라든가 "본인과 부인 모두 건강한 60대 저 후반의 응답자가 "70세 까지 사는게 적당하다"고 적어 놓은 까닭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돈〉의 내역이 분명치 않았던 설문등도 앞으로 재정리 돼야할 것으로 반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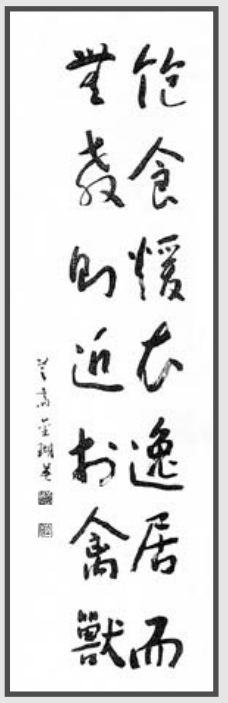
끝으로 존함까지 적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김원용 이승균 호현찬 이창훈 최계환 김현성 여용식 육증수 원로 선배님들과 강남수 구양술 권중훈 김계섭 김남혹 김영세 김재춘 김정훈 김종식 김철린 도문개 류경현 박군대 박명수 박준영 서병주 손소진 송원용 신현석 안평선 오철환 우국제 유승호 유지호 이규영 이기창 이상범 이운섭 이현규 이희문 정두진 정용석 정용일 정일화 정재황 조두현 주강영 지승표 최낙곤 최동주 허인수 회우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리: 김은구·길 주)

丙戌年 회우작품 지상전

이광주 회우

김광일 회우



김호영 회우

우제탁 회우

우리지부 새해 새 포부

전주지부

우리가 보듬어야 할 것들

다발솔 많은 양지바른 동네 뒷산 앞산, 물버들 여울목 물소리 새소리 조잘대는 실개천이 이루는 큰내 따라 질펀히 펼쳐진들꽃, 기름진 곡식으로 풍요로운 들녘, 산자락 뒤로 내를 안고 고즈넉히 자리잡은 고향마을, 그곳에 가고싶다.

※전주지부는 회원들을 그곳으로 안내하는 향도가 되고 싶습니다.

(전주지부장 김남규)

광주지부

지역 사우회보 발간이 희망

올해에 광주, 전남지역 퇴직사우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공간인 '사우회 전용 사무실' 확보가 가장 큰 포부이고, 지역 사우회보를 발간하고프다. 다음은 각 지역 '사우회 지부장님'들을 초청해서 소주 한 잔 나누고 싶은 것과 본회 이사회를 光州에서 한번 쯤 초청하고 싶다. 새해에는 등산, 낚시, 바둑 등 '취미여가 활동'을 강화하고 나아가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한 달에 한번은 만나고 모이는데 주력하겠다.

(광주지부장 김수일)

대구지부

영그는 방송인 삶을

제2의 방송인 삶이 영그는 지부사무실 마련이 제1숙원 사업이다.

병술년 대구총국 개국을 축하하면서 총국 개국기념 퇴직사우 척사대회를 새 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년과 같이 등산대회, 하계연수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특히 10월에는 동해안 국도를 따라 해안가를 멋있게 여행해 볼까 한다.

금년부터 매년 현직에서 고생하는 후배 한 사람씩 골라 포상할 계획이다.

(대구지부장 임채기)

청주지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파

사우간의 단순한 친목위주의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지역사회나 불우이웃에 도움이 되는 일을 새해에는 꼭 하고 싶다. 청주총국장, 충주국장과 팀장들이 참석하는 합동사우회모임이 매년 성대하게 열리기를 기대한다.

회원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돈독히 해나가면서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을 겸한 등반대회가 매년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히 회원의 애경사에 전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청주지부장 장기완)

강원지부

춘하추동 명산 탐방을

병술년 새해를 맞으며 올해에도 名山探訪만은 꼭 해야 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우선 봄에는 太白山 준령에 흔하게 퍼져있는 건강에 좋다는 자연산 산나물 채취에 나설 것이고 여름에는 깊은산 山寺를 찾아 조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가을이 되면 오색찬란한 오대산 비로봉의 곱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면서 심신을 수련할 생각이다.

(강원지부장 김종성)

부산지부

정이 넘치는 지부되기를

금년에는 부산지부 회원이 60명을 넘을 것 같다.

KBS에서 청춘을 바쳐 일하다 퇴직한 선후배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의 쉼터 초량동지부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방하겠다. 지난날 활동하던 자료들을 수집 게시하고, 독서, 서예 등 교양강좌를 열어 정서 함양을 위한 환경조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또한 과수원이나 농장을 운영하는 회원들 방문하여 일손돕기를 계속하여 상호유대를 돈독히 할 것이다.

(부산지부장 구연도)

창원지부

많은 이벤트의 활성화

회원의 배가가 우리 지부의 우선 목표다. 경남지방의 활발한 발전에 우리 방송인이 향도가 되었으면 한다.

회원들을 위한 명산등반, 유명 역사 유적지 탐방은 물론이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회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지부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련만….

(창원지부장 허문수)

대전지부

회원의 건강과 만남에 역점

올해 한해동안 대전지부는 회원들의 건강을 다지고 서로의 만남을 자주 갖는데 역점을 두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단체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산행 등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는 애경사 등 회원상호간 방문하기의 실천 운동이다.

이를 통해 퇴직 이후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서로의 신뢰와 친목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사우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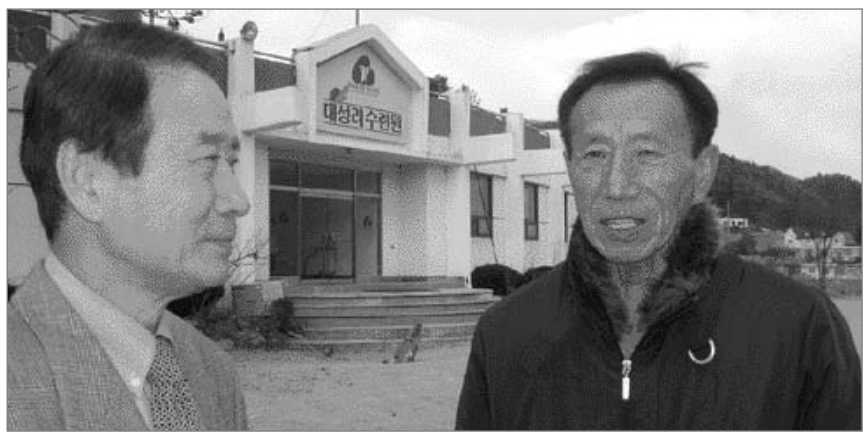
(대전지부장 이정복)

※ 원고 도착순

요즘어떠세요?

金容采 회우와 茶 한잔 나누며

수련원 8만 청소년, Æ/과 æ로 가르쳐



청평호수와 북한강의 맑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대성리 청소년 수련원'을 찾은 때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12월 중순이었다. 고희를 넘겼지만 수련원을 운영하는 김용채(金容采 71세)선배를 만나 보기 위해서 였다.

수련원에 들어 서면 약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흰색 본관 건물에 마주 친다. 본관 앞 마당 아래는 바로 북한강 강줄기다. 뒤로는 범화산, 강 건너엔 화야산 이란다.

-수련원은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95년12월이었죠. 퇴직하고 거의 2년 동안 힘들여서 지었습니다"

재직때부터 사회봉사구상

89년3월에 KBS에서 정년 퇴직한 김 선배는 남다른 새 사업을 구상했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회에 봉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실 이런 구상은 김 선배가 KBS 재직때 부터 생각했었다. 봉사 활동을 즐겨 하던 김 선배의 부인으로 부터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많이 들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청소년 수련원을 생각해 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불우청소년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교육을 한다면 사회에 조그만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선배는 당시 지지 부진했던 KBS 직원들의 전원주택 건설 계획의 부지였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의 일부 땅을 매입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은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충남계룡시 땅의 보상비 등으로 메웠다. 또 정부로부터 융자도 받았다.

96년 이후 김 선배의 수련원을 거쳐간 학생수는 약 8만 명. 이 가운데 비행청소년은 13,000명 이나 되고 장애 학생수는 약 1천명에 이른다.

-여기서 어떤 수련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보통 일주일인데 여기엔 야외활동 교육과 사물놀이 등 문화 교육, 그리고 심성 계발 및 효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비행청소년들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입소 되는데 한번에 40~50명씩 들어 온다. 그런데 이들을 인솔하는 교사가 14~15명이나 따라 온다. 이 교사들은 밤중에 학생들이 도망갈까봐 불침번을 서기도 한다고 했다.

비행소년은 사회책임

김 선배 부인 윤길자씨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직접 배식하면서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입소 첫 날엔, '맛 있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말해도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면 그 애들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안아 주고 하면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비행청소년은 마음이 순수하고 그 문제는 어른과 가정, 사회의 책임이지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윤길자씨는 강조했다. 김 선배 내외는 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더니 그들이 마지막 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김 원장님과 조금 더 생활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모르게 봉사

비행청소년들은 교육 기간중 춘천에 있는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노인들에게 이틀간 봉사하거나 독거 노인들을 찾아 세배하고 수련원에서 준비한 세배돈을 드리는 효의 체험을 하기도 한다. 심성교육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 김 선배는 '효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김 선배는 6.25때 돌아 가신 숙부의 자식들을 돌보고 키우는 등 친척과 남을 위한 봉사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듯 했다. 부인 역시 교회 봉사, 육영수복지관 봉사, 새마을 지도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전화가설이 하늘에 별따기 였던 시절, 김선배는 KBS직원들에게 전화 놓아주는데 앞장섰으며 많은 직원들이 특혜를 입었던 적도 있었다.

KBS가 남산에서 여의도로 이전되면서 KBS는 처음으로 자체 내 전화 자동 교환기 800회선에다 고유국번을 사용하게 됐었다. 이 작업의 주인공이 바로 김 선배 였다.

남 모르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김 선배는 "사우회 회우들은 손자를 본 분이 많을 텐데 자식 사랑은 애지 중지하고 편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글: 김선기/ 사진: 이종문

방송비평

안평선 회우
(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예측기획으로 시대를 리드

2005년 신년호에는 을유년을 반성으로 출발하자고 했는데, 丙戌年 새해는 어떻게 출발해야할까? 남성우 편성본부장의 신임포부는 공영 KBS의 진로와 자세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했다. '한발 앞선 예측과 한발 앞선 기획, 한발 앞선 결정을 통해 KBS가 시대를 리드하고…' 지금까지 그가 기획하고 제작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떠올리면서 확신을 갖게 한다.

지난해 후반기에는 '황우석 연구논문'을 추적 검증하는 한 프로그램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서 신문 매체들이 'PD저널리즘'을 질타하고 온나라가 어수선 했다. 왜 느닷없이 'PD저널'인가? 저널리즘에 기자따로 PD따로 구분해야 하는가? 20여년동안 KBS의 '추적60분' 'KBS스페셜'을 비롯한 TV리포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영역에 제한없이 밀착접근과 심도있는 분석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왔고, 시청자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아왔다. 시청자들은 신문매체들의 보도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실감을 느낄수 있었을 것이다. PD 취재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관점에 따라서는 영역을 침해당하는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교 양

〈특별기획 양극화사회 희망의 로드맵〉
방송 : 2005. 12. 6~9(4편)
PD : 황용호 / 진행 : 정관용
〈KBS 대토론〉
방송 : 05. 12. 9~11(3편)

신빈곤층의 현상보고, 가난의 대물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관계,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등을 4편으로 구성. 현장의 소리와 실태를 양측에 균형있게 취재하고 희망적인 방안을 찾는 지도를 그리고, 양극사회의 관계자와 전문인들이 출연하여 돌파구와 상생의 조건, 격차의 해소책을 찾고 제시하는 대토론으로 연결하여 설득력있게 공감도를 높였다.

양극화의 취재구성이 적절했고, 사회자 정관용의 진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우수한 역작으로 평가된다.

쇼

'한중가요제' '인권의날 특집콘서트'는 묵은 때를 벗어 버리듯 밀도있는 구성, 생동감 넘치는 연출로 완성도를 한층 상승시킨 쇼였다.

〈제7회 한중가요제〉
방송: 2005. 11. 27(일)
CCTV · KBS 공동제작
녹화 : 중국 심천 수상 특설무대
기획 : 전진국 / PD : 서태룡
연출 : 하원
MC : 신영일, 김경란, 중국Ann
출연 : 강타, 동방신기, 천상지희, 클론, 송대관, 마야, 인순이

환상적인 무대, 화려한 스타쇼, 중국측의 향상된 수준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융합조화를 이루었다. '사랑해서 미안해'등 트로트 3곡이 약간의 이질감을 주었지만 클론, 마야의 폭발력에 인순이의 역동적인 볼륨이 통쾌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세계인권의날 특집콘서트 LOVE〉
방송 : 2005. 12. 10(토)
PD 연출 : 김동기
출연 : 넥스트, 박화요비, 자우림, 윤희정, 다니엘헤니, 전인권

지구촌 어린이에게 새희망을 주자는 특집 캠페인쇼. 캠페인을 테마로 하는 쇼가 프로그램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데 MC를 배제시키고 캠페인 메시지를 브리지로 연결, 본격 TV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화면, 의상 등 블랙이 주조를 이루었지만 오히려 효과적이 었다.

〈국악한마당〉
'겨울을 부르는 노래'
방송 : 2005. 12. 11(일)
PD : 박태호 / 연출 : 이상흡, 최공섭
진행 : 김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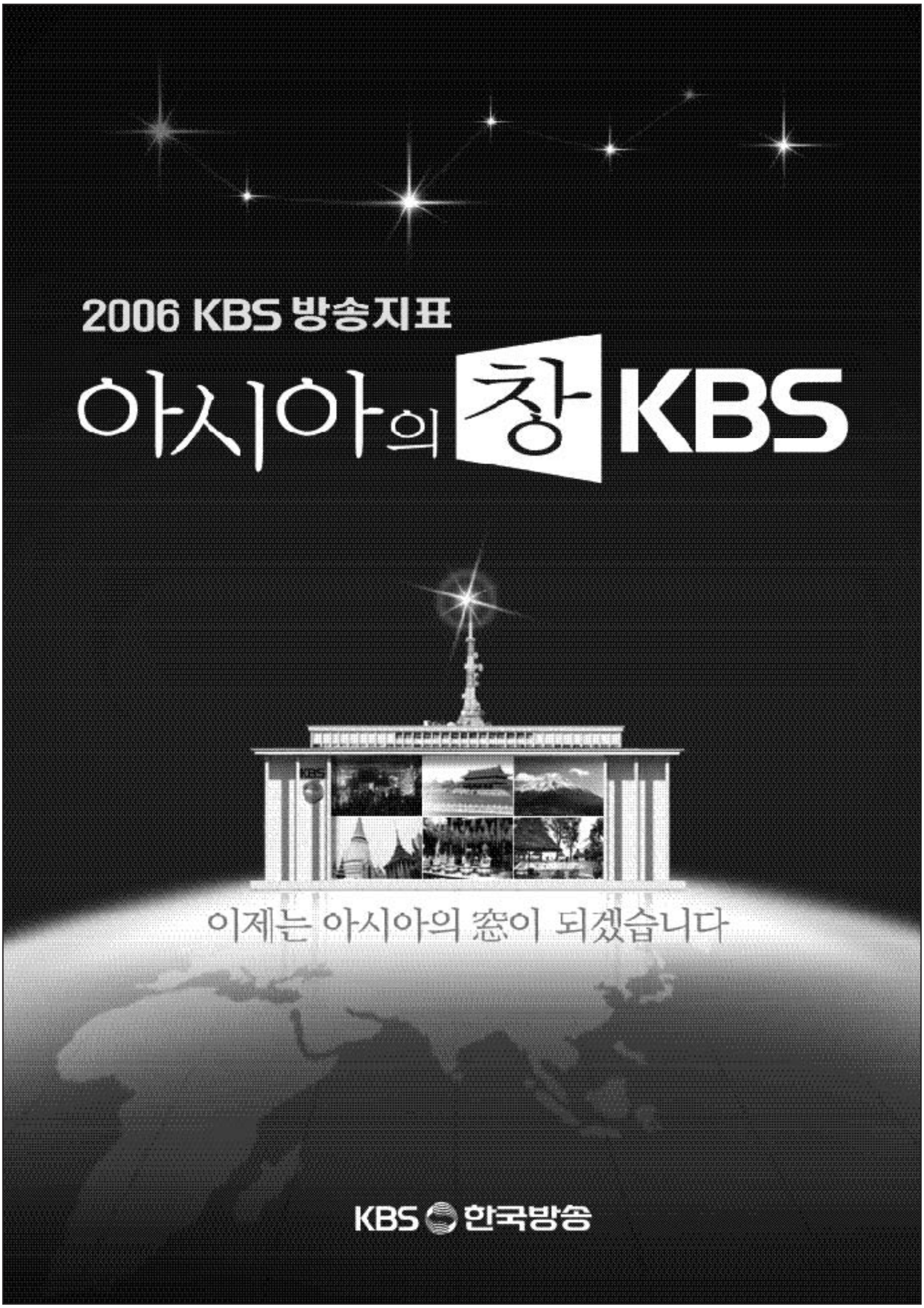
▷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른 민요는 지금까지 가요창법으로 기분만 내는 데 비해서 전문적 수준에 손색이 없이 친근감에 흥겨움이 넘치게 했다. (민속반주), 김용임(노래가락), 이명주(가야금병창), 유지나(남도민요)

(국악인 안향련, 김혜란씨등이 양악반주로 취입한 디스크로 대중화의 시도를 했는데, 계속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임.)

▷ 최근순 김권식의 퓨전민요 '아리랑' '몽금포타령'은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KBS 큰 특집프로에 특정 국악인에 한정하지 말고 새롭게 개방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요무대〉
방송 : 2005. 12. 12(월)
PD : 김승우 / 연출 : 박성명
MC : 전인석 / 자문 : 김점도, 원형걸

작고한 은방울자매 박경애 여사, 방운아 선생 추모특집은 신속하고 성의있는 기획이었다. 큰방울 박여사의 별세로 '은방울'이 계속될지 가요사의 기록으로만 남을지? 부산에서 출발해서 40여년 넘게 맑은 음색 부드러운 유니송으로 일관한 뚜엣 '은방울'은 '마포종점'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것이다. 방운아 선생은 1951년 대구극장 콩클대회로 데뷔하여 두곡 히트로 방송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자유천지'(1956)는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황폐하고 각박한 생활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싶은 심경을 노래해서 크게 유행되었고, '부산행진곡'은 부산 PR Song으로 부산 응원가로 부산 망향가로 널리 애창되는 부산 주제가이다.


2006 KBS 방송지표
아시아의 창 KBS
KBS
이제는 아시아의 窓이 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